

# 해남에 세계 최대 'AI슈퍼클러스터 허브' 들어선다

### 전남도, 15조원 투입... 120만평 부지에 3GW 규모 조성 스탠퍼드센터·한국에너지공단·SFR와 협력 의향서 교환

세계 최대 규모인 3GW 이상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가 오는 2030년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일원 120만평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8년까지 7조원, 2030년까지 8조원 등 모두 15조원이 투입되는 이 클러스터 허브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대규모 ESS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스탠퍼드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스톡 팜 로드(SFR-Stock Farm Road)가 참여하는 의향서(LOI)도 교환했다.

전남도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호텔에서 퍼힐스(FIR HILLS),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주), 해남군과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명현국 해남군수, 아민 바드르 엘 딘(Amin Badr-El-Din) 퍼힐스 공동의장, 고형권 BS(보성)산업 부회장 등 관계자를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여기에 구축되는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모델 연구와 훈련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로서 일반 데이터센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솔라시도에 구축되는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는 3GW 이상으로 미국 북버지니아의 2.5GW나 중국 베이징의 1.8GW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스톡 팜 로드(SFR-Stock Farm Road, 지주회사)와 퍼힐스(자회사)는 실리콘밸리 등의 빅테크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를 전남의 넓은 부지, 풍부한 전력과 우수, 우수한 인재, 지진 안정성 및 재생에너지100(RE100) 실현 등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로서의 최적 조건과 연결시킴으로써 투자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빅테크와 투자사의 펀드레이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사업 성공의 핵심인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154kV 변전소를 2028년까지 당초보다 2년 앞당기고, 통신·유수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령과 투자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퍼힐스가 협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토지계약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1차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스탠퍼드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스톡 팜 로드(SFR-Stock Farm Road)와 함께의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의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구축지원을 위한 '전남도-스탠퍼드-켄텍-SFR LOI'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체결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아민 바드르 엘 딘(Amin Badr-El-Din) 스톡 팜 로드 공동의장, 마이클 레펙(Michael Lepech) 스탠퍼드대학교 지속가능개발센터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스탠퍼드센터는 글로벌 AI 및 슈퍼클러스터 분야 최신 기술 자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전력망 최적화 연구와 기술 개발, 전남도는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미래 첨단

기술과 세계 최고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온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의 출발점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로 첨단기술로 떠오른 글로벌 AI 기반 슈퍼클러스터(데이터) 분야에 세계 최상위권 대학교의 기술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전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유치를 목표로 하는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전력 자급률이 200%에 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5.19GW)과 잠재량(444.2GW)이 대한민국 1위를 차지해 대표적 전력다소비업종인 데이터산업을 집적화하고 재생에너지100

(RE100)을 실현할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남도는 스탠퍼드대학교를 모델 삼아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481억원을 투입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40만㎡ 규모의 '산·학·연 에너지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글로벌 기업과 대학교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AI 혁명 시대를 맞아 한-미 간 위대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무등시장 '차 없는 거리' 지정에 방문객·매출 급증 '효과'

### 방문객 65%·매출 27% 증가

광주시가 무등시장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 결과, 방문객 유입과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11월 2일 매주 토요일 무등시장 차 없는 거리 운영 기간에 6만4190여명(체류시간 20분 이상 기준)이 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방문객 3만8845명보다 65% 증가한 것이다.

운영 기간 방문객 수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첫째 주 1만1913명이던 방문객 수는 1만2628명(둘째 주), 1만2846명(셋째 주), 1

만2943명(넷째 주), 1만3860명(11월 첫째 주)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인접한 전남지역 주민 등 외지인의 방문도 이어졌다. 광주와 인접한 나주시(509명), 화순군(500명)에서 가장 많이 찾았으며, 여수(222명)와 목포(151명)에서도 방문했다.

연령별로는 50대(22.4%), 60대(21.9%), 40대(16.9%), 30대(13.2%), 20대(10.5%) 순으로, 전 연령대가 골고루 야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차 없는 거리 기간에 열린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 워크온 걷기 챌린지 등이 방문객 유입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었다.

이 기간 무등시장 일대 매출이 10억1100만원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9400만원)보다 2억 1700만원(27.4%) 증가했다. 요식업이 총 5억 31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52.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2400만원 늘었다.

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금남로, 풍암동 소통 테마길, 백운광장, 전남대학교 후문 대학로, 송정역 시장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해미 광주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효과를 지속 분석해 광주시 보행 중심의 공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시 이용인구 증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신규임차 3월17일부터 접수... 1년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 지원

광주시는 "3월 1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 회당 30명), 3월 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 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신청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공공배달앱 5000원 할인쿠폰 쏜다

### 3월 특별할인 프로모션 진행

광주시는 "3월 한 달간 광주 공공배달앱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학기를 맞아 평일인 3월 3~6일, 토·일요일 3000원 할인쿠

폰을 제공한다. KIA 타이거즈 홈 개막전 기간인 3월 22일과 23일에는 KIA 승리를 기원하며 최대 4000원까지 할인쿠폰을 준다.

지난해 광주 공공배달앱을 운영사별 50회 이상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5000원 감소 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다.

앱 운영사인 '위메프오'와 '뽕겨요'를 통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4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와 정국 불안 속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힘쓰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지금 **광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